

詩

三人選集

(강동식·서용규·차경섭)

곡성문화원

인사말씀



김길영

(곡성문화원장)

오래 전부터 유서 깊은 이 고장에 문학지가 없어 서운하게 여겼는데 뜻있는 문학 동우회원의 적극적이고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열악한 경제적 조건을 극복하고 꾸준한 노력끝에 “시 삼인선”을 출간하여 여러분께 선 보이게 된 것을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처음부터 방대한 저서를 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만큼의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성인의 얼굴을 조각하듯 마냥 조심스런 손길로 시를 쓰셔서 흔쾌(欣快)한 마음으로 작품을 보내주신 향토작가 3인의 정성으로 비롯된 것이어서 이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제 평소 내가 소망한 것이 비로소 결실을 시작한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출간 되기까지 산과 역할을 마다 않으신 조형래 군수님과 유영호 군의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강동식 편

- 어느날의 연상 · 13
 회상은 강물처럼 · 14
 벽제산간에서 · 15
 님은 어디에 · 16
 파랑새 회상곡 · 17
 한편의 시 · 18
 슬픈 여름이여 · 19
 집 돼지(豚) · 20
 삶의 길목 · 22
 저~ 먼 곳에 · 23
 봄을 기다리며 · 24
 대맥(大脈) · 26
 새봄이 오면 · 27
 가신 님의 숨결 · 29
 옛 고향의 봄 · 30
 저녁 강 · 31
 회한가(悔恨歌) · 32
 늦쇠잔 · 33
 산촌 · 34
 목화꽃 · 35
 떠나는 배 · 36
 달빛 · 37
 나그네 · 38
 흙비 · 39
 유심초 · 40
 거문고 타던 노인 · 41
 한(恨) · 42
 친구들 · 43
 슬픈 여정 · 44
 가을의 초가집 · 46
 사자후 · 47
 허~ 참 그놈들 · 48
 개미와의 대화 · 49
 미나리 꺾 · 51
 창공(나의 나비) · 52
 강변의 노래 · 53
 무제 · 57
 체온유지(황영조의 웃음) · 59
 화엄경 · 63
 낙엽 · 65
 나목(裸木) · 66
 6월 1일 밤하늘 · 67
 슬픔은 강물이 되어 · 68
 어머니 · 70
 바람과 비 · 72
 종점에서 · 73
 눈오는 날 밤에 · 75
 만남 · 77
 장엄한 역사의 시작 · 78
 새로운 태동 · 79
 아주 먼 미래 · 82
 달아 밝은 달아 · 84
 나두야 가려네 · 85
 허물어져 버린 마음 · 86
 설악산정을 조망하며 · 87
 바람이 부는 날에 · 88

● 목차

■ 서용규 편

- 산불 · 91
개 짚는 소리가(Ⅰ) · 92
개 짚는 소리가(Ⅱ) · 94
개 짚는 소리가(Ⅲ) · 96
만각 · 98
도심의 봄 · 100
가을 · 101
소망 · 102
신호등 밑에서 · 105
인생 · 106
일요일 · 107
동구 앞 느리나무는 · 108
옛날 옛적에 · 110
꿈에도 이런 마음이 일지않게 · 113
오동도 소묘 · 116
꿈이 · 117
당신 · 118
이렇게 삼시다 · 119
아내 · 120
乙亥頌 · 121

■ 자경섭 편

- 강물 · 125
목련꽃 · 126
정의 · 127
비둘기 · 128
발자국 소리 · 129
뜨거운 정 · 130
등대 · 131
소나무 · 132
새싹 · 133
일곱살 · 134
나는 행복하다 · 135
훗날에도 · 136
즐거운 아침 · 137
홀쭉이 똥똥이 · 138
봄은 즐거워 · 139
시계 · 140
심술쟁이 · 141
태양 · 142
친구 · 143
추억 · 144
샛별 · 145
목화 · 146
아침이슬 · 147
꽃나라 · 148
여덟살 · 149
쪽배 · 150
피아노 · 151

장독대 • 152	무지개 • 181
삼살이 • 153	과학의 세상 • 182
풍경 • 154	지평선 • 183
희망 • 155	불 • 184
고향 • 156	
구름 • 157	
청포도 • 158	
소곤소곤 • 159	
4월은 • 160	
호숫가에서 • 161	
백로 • 162	
고양이 • 163	
까치집 • 164	
팽이 • 165	
새 세상 • 166	
산골마을 • 167	
나비 • 168	
옛주소 • 169	
선생님 • 170	
편지 • 171	
꿈은 멀고 • 172	
샘터 • 173	
바다 • 174	
나무 • 175	
거울 • 176	
눈세상 • 177	
재롱 • 178	
사공 • 179	
아침해 • 180	



- 아호: 松溪
1936년 전남 곡성 출생
성균관대 및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장르문예> (1995년) 시부문
당선으로 문단 데뷔
거목문학회 및 한국불교문인협회 회원 등으로
문단활동중
- 시집으로 <감꽃피는 마을> 등 다수
- 현재: 수서전화국 기술부장

어느 날의 연상

청계천 어느 판자집 골목 어귀에서
남치마 걸치고 초롱하게 서성이며
겹먹은 작은 아가씨,
누구일까?

꿈나라에서 왔을까
별빛 타고 왔을까
아니면
아라비안 나이트에 비추인
요염한 어머니들의 후손이거나 한가.

난
오늘도
해돋는 아침 공원 풀밭에
수줍어 피어난 꽃들을 보며
희망을 날으는 한 나비가 되어
상념의 세계에서 방황한다.

희망은 강물처럼

너의 목마름에 채워질
애절한 소망마저도
저 높은 밤 하늘의
은하수와 같이
흐르는 강물이여라.

물결치며 흐르는
박동하는 가슴처럼
희망을 갈구하는 모진 생명도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되는 마지막 사랑
무섭도록 차가운 밤하늘의 별처럼……

벽계산간(碧溪山間)에서

백담사 계곡에
벽계수 흘러가며
당차게 노래하듯
역사의 소리가
산간(山間)에 가득하다.

태고의 숨결로
오늘을 사는
꿈을 머금은 세월
백옥(白玉)되어 흐르고

떠도는 구름과 하늘을
심장에 담고 담아
요요하게 굽이치는 물줄기는
정화(淨化)를 위한 열띤 정성일까……

역사(歷史)의 씨앗으로 잉태하는 강심(江心)
법고창신(法古創新)을 노래하며
미담의 세계를 여는
새로운 시작(始作)들이 흘러가네.

님은 어디에

드넓은 가슴
포대기 같은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주던 님께선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구멍가게에서
생달걀을 사서 주며
먹어 보라던 님께선
지금도 어디에서 꿈을 꾸고 있을까요.

파랑새처럼
꿈 속에 하늘을 날으던
내 어린 시절의 사랑하던 님께선
지금쯤은 어디에서 잠들고 계실까요.

파랑새 회상곡(回想曲)

파랑새를 찾아가
이 나라까지
육지로도 몇날 밤
하늘로 몇날 밤
물고만한 이 길을
찾아왔느냐?
파랑새 간 곳 없이
떠나 갑니다.

한편의 시(詩)

길게 뻗은 오솔길을 걸어가네.
촉촉히 젖어든 가랑잎들
지금쯤 깨끗한 바위 하나 있으면
조용히 머물고 싶은 시간이다.

촉촉히 젖어든 산행 길목
칩칩하게 배어난 땀 씻으며
넓다란 화강석 바위에 앉아서
한 권의 시집(詩集)을 펼쳐본다.

아무리 새롭게 다짐해 본들
세월따라 지쳐버린 나는
읽던 시집(詩集)마저 접어두고
술바람 저 편의 하늘을 본다.

다람쥐 눈 껌벅이는 노을빛 받으며
오던 길 되돌아 집으로 가는 길에
몇 편의 시구(詩句)가 꽃잎처럼 싱싱하게
따뜻한 체온으로 다가오네.

슬픈 여름이여

이태원으로 빠지는 길
이토록 짝나는 도심(都心)의 여름
노변에 우거진 미류나무 숲속에선
저토록 모질게도 쓰르라미 우는가.

담배연기 아스라히
멀리 떠났다는 너의 부고장
열병환자처럼 땀을 흘리며
너의 보광동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

땅딸막한 체구에 푸른 군복차림으로
다정스레 배시시 웃던 모습이 좋아서
헤어진 후에도 내가 보고 싶어
다이얼을 돌리면서 수소문 했었지.

우리 서로 만나서
자춧빛 커피 한 잔 들고 싶었는데
종말은 소리없이 다가와서
싫도록 울어대는 쓰르람 노래 듣는가.

집 돼지(豚)

거무스런 어두움이
호박넝쿨 뒤엎힌 담장을 넘어와서
돼지집 울안으로 가만가만 찾아들면
검은 빛의 큰돼지가 잠으로 드는 시간.

가냘픈 살림에 지쳤을 때도
우리집 돼지는 꿈 돼지
애절한 소망들의 꿈바구니
비웠던 곳간(庫間)에도 희망주지요.

토실한 집돼지, 집돼지들
애절한 소망들의 꿈바구니
도라지 캐러가는 바구니에도
돼지의 꿈들은 채워지지요.

다섯 아이 키우느라 서럽던 나날들
바닥난 뒤주속 나무결소리 괴로운데
꿀꿀 들려오는 돼지의 탁음곡(濁音曲)이
희망을 심어주던 그런 사연 있었지요.

긴밤 흘러서 새벽되면
마당 쓸던 머슴에 싸립문 열고
때묻은 부엌문이 삐거덕 소리내면
탁음의 돼지울음 부적(符籍) 같아요.

꽃밭 기어가던 담장을 넘어
햇빛 쏟아지는 아침이 되면
풍년 기원하던 농부의 가슴에도
둔탁(鈍濁)한 돼지울음 영가(靈歌)가 되네.

삶의 길목

비틀대며 길을 걸어가던 초저녁
오색빛 네온등에 발길 멈추고
쳐다본 극장 정문의 영화 제목이
하필이면 「길」이라는 간판이었었지.

별이 없는 아우를 외롭게 남겨놓고
나 혼자서 훌쩍이 떠나야 되는 몸이여서
너무도 괴로워 울지도 못하던
길을 찾고 해매던 열혈 청년이었었지.

힘찬 인생길 살아가던 짚시는
모-진 못숨을 해변의 모래밭에 누이던
회오리에 뒤덮인 평장의 무덤 하나
생사(生死)가 그토록 허무해 보이던 초저녁이었었지.

다음 날 아침의 논산행 기차길의
희뿌인 안개로 가득한 들판의 길목에서
고향에서 사시던 할아버님 생각에 젖어들어
눈을 감은 채로 잠들어 버렸었지.

-입영 영장을 받아 방황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저-면 곳에

어린 시절의
저-면 곳
찬바람 불어오던
까맣게 타버린 언덕에서
벗들과 나는
차가운 손을 비벼대면서
따뜻한 불기운에
꿈을 녹이고 있었지.

파릇파릇한
보리밭 이랑마다
까치떼들이
먹이를 쪼아대고 있을 때
벗들과 나는
찬바람을 막아주던
따뜻한 언덕에 누워서
설레이던 마음을 잠재우고 있었지.

-고향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봄을 기다리며

하얀 눈도 한두 번이지
차가운 인심에
찬바람까지 이 모양이나.

어서어서 봄이나 오거라
개나리 피고
봄바람 스며 들면
내 마음도 녹을테지.

머리가 هنگ하니
통 감정이 얼어 붙어서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알 수 없구나.

어서어서 봄이나 오거라
나비 한 마리라도
아질아질 날아 들면,

네 마음 내 마음이
다소간 풀릴테지.

누구를 위한 삶인지
알 수 없는 이 겨울이
어서어서 지나 가거라.

봄이 오면
조그마한 들꽃 한 송이 피면
발화점이 되어서,

너와 나 그리고 모-두에게
뿌듯한 설레임을 안겨 주겠지.

어서어서 봄이나 오거라
지금은 엄동설한
그러나 입춘은
한 스므날 남았다지.

-길동 일우에서-

대맥(大脈)

황토(黃土)
장송(長松)들
그 곁엔 도토리나무
박달나무가 자라고 자란 자리.

인적(人蹟)이
사람들 지나는 큰 산길 거기 있어
가슴 후련하게
큰바람 솔밭 사이
짜-불어 들고,

평원(平遠) 영봉(靈峯)
중원(中原)과 한토(韓土)의 경계(境界)
백두산정(白頭山頂)
우리들은 산정(山頂) 비스듬한
큰 길섶에 있었지.

-
- (주) 1. 초하루날 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줄거리를 詩文으로 옮긴것임.
2. 당시까지는 우리쪽에서는 白頭山에 대한 일체의 정보나 영상 자료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개방되면서 차츰 그 위용이 들어나기 시작하였음.

(추기) 시인 高銀 선생님께서 1987년 6월에 시작. 민족의 대서사시인, 「백두산」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987년 10월 30일 초판 발행하였음.

새봄이 오면

관음(觀音)이듯 속은 대던
백목련(白木蓮) 향(香)에 취해서
언덕을 넘어가면 길옆의 짙레나무
줄꽃들이 피겠지 가슴을 열고.

피고 또 피고 다시 피어나는
꽃가지 정기몽처
토실한 하늘열매 별들의 열매가
쓰르라미마저 쓰르람 쓰르람
나무그늘에 잠이든 나그네의
끝없는 시름을 달래주려나.

검은 바람 섬뜩이며
울밑으로 날라든 검은 에비 까마귀가
어미닭 주변에서 노닐 병아리를
날카로운 두발로 할퀴면서 채가누나.

메밀밭의 메밀꽃 사이사이로
슬적이 들어온 종(鍾)소리가
비비새가 되어서 비비새가 되어서
비비벌 속은대며 떼지어 날을테지.

한여름의 힘찬 쏘나기가
후득이며 텃밭에 쏟아지면

이곳 저곳의 넙치같은 호박잎을
드럼이듯 두들기리 드럼처럼 두들기리.

지평선 저 멀리 산과 들에서
채홍색(彩虹色) 가을빛이 제모습 들어내면
김홍도(金弘道)의 그림처럼
풍년제(豊年祭)가 열릴테지.

가신 님의 숨결

복잡한 세상 너머로
눈바람 훔날리는 별판 지나서
아늑한 초막(草幕)에 홀로 머물며
시가(詩歌)를 읊어가며 지내려는가.

떠난 님 생각나서 산(山)에 오르니
아직도 겨울인 듯이
취죽 색깔의 도토리나무 사이사이로
연분홍 진달래가 군데군데 피었구료.

한 그루 소나무가 바람따라 흔들리며
찾아든 산새들이 반겨주누나
산아랫 동네 장사꾼의 목소리
『사세요, 사세요』 호객(呼客)을 하는구료.

그대 떠난 빈 자리에
복잡한 세상파도(世上波濤)여전한건만
이 산 저 산에 꽃이 피니
가신 님의 숨결이듯 봄이 오네.

옛 고향의 봄

갈슌에 핀 무성한 짚레여
살림살이 백목련의 향기,
멀리 가까이서
봄은 피어나고 있었네.

토실한 하늘
별들의 열매가
밀어를 속삭이며
어느새
잠든 나그네의 시름을 달래주고 있었네.

병아리떼 쫓쫓쫓
울밑에서 재롱부리고 있는데
바람 섬뜩임 속에
새매 한 마리 마을을 뒤지며 돌고,

맑은 날
비비새 종소리
메밀꽃 사이에서
꿈이듯 호박잎을 띄우고 있던
아, 내 어릴적 고향의 봄.

저녁강(江)

어두한 공원의 풀밭에서
떠오르는 달을 찾으려거든
나무가지 잎새들 사이로
가리워진 달님을
살며시 숨어서 보시구려.

떠오르는 햇님을
찾아보고 싶어지면
우거진 나무숲 사이로
빛이되어 빠져나오는 영롱함을
살며시 숨어서 보시구려.

해맑은 웃음으로 다가와서
쓸쓸히 저물어가면
달빛 철썩이면 저녁 강변에
가득한 외로움으로
살며시 다가오는 님의 그림자.

회한가(悔恨歌)

할아버님 생전에
황소와의 싸움은
우직했던 황소의 저항이
싸움의 시발이었지.

전래의 농토(農土)를
몽땅 팔아서
도회로 옮기려는 속뜻을
예감한 황소의 거친 뿔이
그 분을 향해 돌진했다지.

무경농가(無耕農家)로써
서럽도록 한 세상 사시던
고독해 하시던 마음을
이제서야 알겠네.

우시장(牛市場)으로 팔려가던 황소의
주룩룩 흘러 내리던 눈물 자욱이
이 조용한 밤에
회한(悔恨)으로 남아 눈시울을 적시네.

늦쇠잔

늦쇠잔에
가득한 샘물처럼
푸르른 가슴으로
어머님의 간곡한
기도를 담아
은하수 저 쪽 가신 님에게
합장하는 소망은
자식사랑 내리사랑이었음을
이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네.

산촌(山村)

여백이 가득한 백사지 강변에서
날개를 접어들인 두루미처럼
소복한 여인이 목욕을 하네.
꿈을 꾸고 있을까
시를 읊고 있을까.

펼 펼 땀 흘리며 나무하던 지게꾼은
아름드리 소나무의 짙은 그늘 밑에서
고요한 산촌의 정겨움에 과묵히
드르렁 드르렁 잠들어 버렸네.

산허리 타고오던 산바람들도
살랑살랑 콧노래를 부르고
양광에 번쩍이는 파-란 물결도
뱃전을 두들기며 기쁜 노래 부르네.

-나무하던 옛시절을 회상하며-

목화꽃

무궁화꽃를 닮아서
나라꽃을 닮아서
깊고 너그러운 목화꽃이 필 때면
차거운 가슴도 시원스레 풀리고
움츠렸던 마음마저 한가로이 머무네.

목화열매 피어나는 날엔
나비처럼 날아가듯 부풀은 솜털꽃
하이얀 뭉게구름 내려와 앉아
가난했던 시절 인연(時節因緣) 따뜻이 감싸주는
하이얀 목화열매 엄니 가슴 같다네.

-어릴 때의 목화밭을 연상하여-

떠나는 배

안개비 속에 바람처럼 나타나서
밤이슬처럼 피어난 무지개 꽃
복사꽃 아스라히 설레임 속에
차갑던 땀마저 소근대는
참새들 지저귀는 봄날이 되네.

마을 터밭에 그리움만 심어두고
그대는 홀연히 떠나려 하는가
강물 철썩대는 강 언덕에서
뱃머리 돌려 떠나감이 아쉬워서
설레이는 나는 돌아서 왔네.

달빛

어둠에 싸인
침묵의 산이
고요의 원음처럼
떨러오는
달빛 창연히 드리운
긴 산골짜기에
천 년의 꿈이
서리서리 고여드는 이 밤에
차라리 그대여
산상(山上)에 올라
한바탕 크게
호탕하게 웃어 보려마
역사가 흐르는 길목에서
그대 에 있음을
새겨 두려마.

나그네

개나리 붓 짐 둘러메고
가이없는 길 따라서
영감(令監) 나그네가
걸어서 가고 있네.

호롱불 깜박이는
주막집에 이르르면
사립문 살짝 열고
검은 주름살의
주모의 안내 받아
설화 속의 주인공 되듯이
풍정(風情)을 더듬어
깊은 잠에 빠져드네.

늦잠에서 깨어난
백설영감께서
오수(午睡)에 하늘대는
산자락을 오르며
개나리 붓짐 둘러메고
천왕봉(天王峯)을 서성이네.

이젠 산이 너무 높아
차라리 산동네에 머물며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싶어하네.

흙비

검은 흙
흙비가 내리네.

탐욕의 샘에서
검은 물이 솟구치면
내가 되고
바다가 되어
검은 먹구름으로
하늘을 뒤덮을 때
성난 뇌성벽력 드리치면
주룩룩, 주룩주룩……
회오(悔悟)의 가슴을 열고
주먹같은 눈물을 흘리네.

마음의 씨앗속의
탐욕의 샘에서
검은 물이 흘러
개울이 되고
강물이 되네……

유심초(有心草)

할미꽃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에
따뜻한 언덕에 누워서
그리움에 사무쳐
노래가락 불렀었지.

파랑새를 찾아서
무지개빛 타고넘어
꿈속을 헤메다가
여기까지 왔다네.

그리운 님들은 어데 가고
나만 홀로 노래 부르네
그대들 어데 있나요
떨어진 가랑잎 하나
길 위에서 덩굴며 굴러가네.

거문고 타던 노인

농부는 농사일에 매달리고
선비는 글공부를 하듯이
노인은 거문고를 타야만 했다네.

인생은 무거운 짐이어서
그 짐을 짊어지려고
별 수 없이
노인은 거문고를 타며 살았다네.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지면
요천수가 흐르는 강 언덕에서
강물에 떠가는 양귀비 꽃을 마음에 새기며
나무 한 그루 가꾸려는 마음으로
서러운 시름 씻으려고
옷자락 추스려 하늘을 보노라면
「거문고」는 저만치서 웅웅대며 울었다지요.

한(恨)

허망한 바람이 모여
이루다 이루지 못한 한(恨)들이
나비와 같이 춤춘다.

골짜기 넝쿨 숲속
산딸기 무르 익듯

부는 바람 가는 바람 속에
조용히 피고 진들
어찌 그 큰 한(恨)들이 서리오리까.

친구들

평소에는 그저 그런 친구들
어느 땐가는 세계에 파동쳐 오는 그들.

이제 커버린 자식들을
그들을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떼어내어
저당잡혀 가는 그들의 만년,

나는 그들에게 서글퍼지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

지금 그들의 생활이
노경에 접어들어
행여 심한 파탄이 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떻게 보면 소심적인 그들의 안간 힘
그들의 눈 속엔 잔잔한 고여 들고,

찬란한 아침보다 석양의 정이 느껴지는 그들
나는 더 이상 시상(詩想)에만 잠길 수 없지 않는가.

슬픈 여정

비바람 속을 헤저으며
너와 나
오늘도
들과 산을 넘어
강변에 저녁노을 드리우면
그것이 언젠간
우리에게 푸른 기억이 되겠지.

자운영 꽃밭 위로 바람 저어가며 날으는
나비들
오늘도
꽃내음 맡으며
온 들에 내 꿈 날르면
정녕 그건
언젠간 아련한 추억이 되겠지.

가신 님 그리워 먼 산을 헤매이는
너와 나
오늘도
흘러가는 뭉게구름 따라
님의 목소리를 낙엽 속에 찾아 헤매면
그건
언젠간 아련한 슬픈 얘기가 되겠지.

우리
이렇게
슬픈 여정 속에 이리롭은
정원 한복판
빨간 흑장미 한 송이가
정녕
아침동산 우리의 길목을 눈부시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겠지.

가을의 초가집

빨갭게 익은 가을 고추들을
몇 아름씩 따다가
도방마루에 가득 넣어 놓고
집 떠날 채비에 바쁜
만아들놈 뒷모습만
아버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검붉은 장닭이
초가지붕 위로 푸드렁 날아 올라
하늘 우러러
날개짓 퍼득이며
고별사를 읊조리듯이
「꼬끼요, 꼬끼요」 하고 울고 있다.
초록의 박꽃 넝쿨이
자꾸만 자라더니
나무 울타리를 타고 넘어
새하얀 박꽃들을 곱게 피우더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커다란 박덩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

사자후(獅子喉)

저것은 바람소리가 아니다
산야(山野)를 달리는 사자의 울음소리.

온갖 번뇌를 털어놓고
깨우치며 달려가는 바람소리다.

먹이를 쫓은 성난 사자후가 아닌
오직 천지인(天地人)의 한(根)을 털어놓는 음악이다.

후후-휘이휘이-쌩아-쌩아-
오장육부에서 쏟아내는 바람소리다.

지금은 비바람이 어우러 세차게 불어웨는
내 강토에서 솟구치는 음악이다.

허 - 참 그놈들

꿈에 본 그놈들
지금와서 생각하니
날 속 썩히려는 수작들이었던 것을.

사자, 황소, 족제비, 독사들이
그렇게도 꿈에서 날
식은 땀 펄펄 흘리게 하였거든.

정치라는 사자
인생이란 황소
공산당이란 족제비
불신이란 독사들이.

허-참 그놈들 못된 놈들
지금와서 생각하니
날 속 썩히려는 수작들이었던 것을.

개미와의 대화(對話)

내 너를 보건대
배불리 먹기 위한
너의 뼈저린 삶은 아닐텐데
너 어이
온 종일 호미들고 헤매는고...

내 철이 들어서부터
너를 쳐다본지 이제 50이 이르도록
때로는 흥미롭게, 때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너를 물끄러미 상념에 젖었는데

너 자신을 알라는 어느 철인(哲人)처럼
넌 나에게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목매여 우는 것 같으니
참으로 난 너에게 할 말이 없고나.

너 개미새끼로 태어나서
몇 살 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시원하게 털어 놓으련

개미 가로왈
어느 땐가 문득 눈을 떠서 하늘을 보니
성(誠)이 하늘에 가득하여

어미에게 그 뜻을 물으니
네 몸에 천의(天意)가 와 닿았노라 하여
불현듯 정신차려
성(誠)을 다해 달리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노라.

근(謹)과 로(勞)와 성(誠)을 다하지 못하고
네 한목숨 마친다 하여
회한될 게 없을텐데
네 개미족들이 나를 놀리기 위한
극중 연습을 한 것 같은데
괴씸하지 않은가….

개미 가로왈
인간들은 이따금씩 인생이 덧없다 하거늘
우리넨 지성으로 살아서
한(恨)을 풀어 바다로 만들고
성(誠)을 쌓아 하늘에 이르려 하니
무슨 잘못이 있으리까….

어느 조용한 날 한목숨 끝나기 전
천제(天帝)께서 조용히 강림하사
내 까만 이마를 단 한번만 어루만져 주시는 그날
난 나의 새끼를 낳아 기를 것이니
이름하여 천의충(天意蟲)이라 이르겠소.

미나리 팥

얇은 살얼음 틈새로
빠꼼하게 얼굴을 내밀어
하늘 향해, 빛을 향해
생동하는 미나리 내음이
풋풋한 희망을 애뜻하게 품어내고
추위 속으로 바람타고 날려들면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얼음을 지쳤지요.

병아리 같은 걸음으로
미나리 팥 위를 이리 저리 걸으면
얼음짹이 금가는 소리에
어린 마음에도
세상 일이 이럴 거라고
어렴풋이 한숨짓던 어린 시절은 가고
황혼의 길목에서 그리움에 젖어보니
미나리 팥 지치듯 살아온 일생이
아련히 추억으로 남아
생미나리 내음이 바람타고 오네.

창공(나의 나비)

나비 한 마리
창공을 향해
세차게 나래를 폈다.

들꽃들은
이 언덕 저 언덕에 피어 있는데
창공을 향해 떠난 나비는
날개 찢어진 상처를 입고,

들꽃을 향해
외롭고 처참하게 내려오면서
부끄러워 부끄러워
한스러운 부끄러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부끄러움 속에서
찢어진 날개를 펴려 본다.

들꽃들은
여전히 피어 있는데….

강변의 노래

몽계구름 피어나는
강변 위의 하늘밭
그 속에선 물새 두 마리
구름따라 바람따라 노래를 하고.

그곳의 강변 자갈밭에서
노래하던 옛동무들아
그곳은 은어들이 번쩍이며 뛰놀던
섬진강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고
송아지가 엄마 찾고
도마뱀이 풀밭에서 뛰놀던 곳.
하늘을 맴돌며
필, 필 물노래
물따라 강물따라 날개를 젓던
그곳은 내가 살던 고향
꿈이 자라던 땅.

자갈밭 하늘 위로 찾아든 어미 물새
살짝 내려앉아 날개를 접고
하늘빛 바라보며 금시조(金翅鳥)가 되려는 듯
백사지(白沙地), 백사지(白沙地) 였더라.

돌밭 사잇길로 가던 물새

날개를 접고 알을 낳던
그런 침묵의 시간
태양도 땀이 나고 태양빛도 땀이 나는
번쩍이는 금모래 은모래 빛.

떠나버린 그 자리엔
알이 있었네, 물새알이 있었네
산(産)의 결실(結實), 강변의 노래가
소리의 씨앗들이 모이고 모여서
물새, 물새알이 되었을까.

꽃콩나무가 에워싼
목화나무 무성히도 자라던 시절
농부가 땀 흘리며 농부가를 부르고
꽃내기 소년들이
이 강산(江山) 낙화유수 노래를 하던
시(詩)로 되던 그런 강산.

강 건너 마을에 저녁 연기 냄새 나면
깎았던 책보에다 책들을 싸서
할부모님이 사시고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가던 길은
참으로 널니리 널니리였지.

따사한 물새알을 엄마에게 드리고서
엄마방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서산 노을이 붉으레 타오르고
어두한 밤그늘이 서럽게 접어들 때
나는 울었네, 울어 버렸네.

알송편이 된 그 물새알
밥 반찬이 되어서
할부님의 저녁상에 놓였는 걸 보았네
모질게도 서럽게도 텅그렁 텅그렁
풍경소리 같은 슬픈 노래소리
물새가 우네, 물새가 우네.

고창 어느 곳에 거(居)하던 할부님이
한지로 곱게 싼 약봉지들을 가리키며
집으로 갈 땐 집에 가거들랑
「네 엄마 약이니 갖다 주어라」 하신 말씀
이제도 쟁쟁하네, 쟁쟁하게 들리네
젓먹이 어린 나를 소리없이 키우시던
서울 할머니, 할머니 생각
할머님은 가시고
외롭던 할부님의 쓰리시던 인생여정
까치가 우는고나, 까치들이 나는고나.

벽안(碧眼)의 릴케야
네 시향(詩香)의 빈 터에 서서
시(詩)를 접고 떠나버린 너의 빈 터에서
우리들이 시(詩)를 쓰네, 나의 시를 쓰려네.

지금도 생각 나네 생각이 나네
옛 동산에 올라 들관길을 바라보며
두루마기 소리내며 휘적휘적 다니시던
그 어린 손아귀의 자주빛 지팡이가
휘필(揮筆)처럼 빛나네 광휘(光輝)가 되어.

무제(無題)

황금빛 누런 보리들
고구마 감자 그리고 찬란한 해바라기마저
그들의 씨앗은 무시의 신비 속에서
끝없이 끝없이
시작과 결실을 윤회하며
저렇게 자라고 있으니

지금 우리는
인간 이기의 시대에 살면서
땀 흘리면 된다는 하면 된다는
성실과 정진의 결실로써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소산인 것처럼
우뚝대지만
물론 그 땀 흘림은 값진 것일지라도

그 신비스런 오백과의 씨앗들이
그렇게 자라주고 결실해 주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보람인 양 그들을 바라보는 것일 뿐
우리는 그렇게 누구엔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는 나[我]의 전성기에 살아가고 있음은
언젠가 해가 서산에 지고
빨간 노을이 낙조(落照)로 번지면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메울건가.

우리는 정녕 자연을 지배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자연이란 그 속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기도 벅찬 일이지
인간의 절대권위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
순수한 인간의 존엄성 바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리.

체온유지(體溫維持)

(황영조의 웃음)

나른해진 늦은 봄 하늘에
연분홍 꽃잎을 피우는 것은
밑으로부터 떠오르는
뜨거운 사랑의 연가.

삐죽 삐죽대며
검푸른 숲속의 정열을 노래하는
한여름의 하모니마저도
냉기 가득한 한 겨울동안
생명을 위한 체온생산(體溫生産) 공장일테지.

철없는 시인들이 노래하는
가을 낙엽, 체념, 고독, 그 또한...
미처 챙기지도 못한
부수입(副收入) 같은 인생의 잡기장(雜記帳).

그들은 이미 허무의 강을 건너 서서
체온유지를 위해
무성했던 잎새들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던 무게 만큼
뚝뚝 떨어지는 낙엽.

청아한 가을 하늘에 매달린
뜨거운 땅 기운(氣運)의 결실일까

실한 열매들이 씨앗들이...
차라리 응축된 생명의 핵(核)
종말에의 대비 같은 것.

열애(熱愛)
젖가슴을 비비며 애무한다는 것은
처절한 생명유지(生命維持)
부활(復活)을 위한 사육제(謝肉祭).

열사(熱砂)의 태양이
사평선(砂平線) 너머로 떨어져 가면
차거워진 밤기운
별빛이 흐르는 고요.

깊시처럼
김삿갓처럼
떠돌이 나그네가 되어
찾고 찾으려는 그들의 집념
체온일테지, 가슴일테지...

겨울이 가면
봄은 오는 걸까
체온유지, 인내
히로시마의 함성

하늘을 향한 황영조의 웃음.

무도회장에서 춤추던
술냄새 나는 화려한 드레스마저
지금은 다 벗어버린 채로
홀로된 기분으로 창가에 기대서는
나목(裸木)이 되는 지혜를
이 가을에 좇어 보자.

아침이면 풀밭에서
그렇게들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마저
약속처럼 뚝 그쳐버린 무거운 고요
정말 미쳐 버릴까….

붉게 타는 단풍 숲으로
시인(詩人)들이 오솔길
스님들도 찾는
탈을 쓰고 사는 할멈마저도
단풍든 숲속으로 들어가네.

연분홍 봉선화가 초롱처럼 필 때면
자그만 산벌들이 꽃내음 찾아 날아들 듯
낙엽을 보며, 낙엽을 밟아가며
흰머리 추스르며

가을숲을 찾아가네.

아련한 추억 속에서
희미한 봄날의 발자취
봄을 좇으려나
부활을 좇으려나
노란 은행나무 잎을 주워 모으는
떨어진 가을을 주워 모아
이 푸른 하늘을 향해
뿌려 보자, 뿌려 보자

아침 해보다 네배나 커버린 황혼의 태양
집으로 가는 시간이다
체온유지를 위해서.

화엄경(華嚴經)

우리들의 삶들이
괴롭지 않은
편리함과 즐거움 만으로
가득하길 바라지만
그것은 한낱 허무(虛無)로 가는 길일 뿐.

괴로움은, 고통은
길[道]이요, 빛[光]의 인프라에너지
괴로웠던 시절이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나의 열망(熱望)을 낳고,

괴로움과 고통은
차라리 희망으로 가는 기관차
그 누가 오늘의 괴로움이
좌절(挫折)로 가는 길목이라고...
그것은 차라리 사탄(詐誕)의 절규(絶叫).

고뇌(苦惱)를 거치치 않은 자
그 구름이 강 넘고 산 건너
비가 되어 비가 되어 나리고
맑은 하늘, 청천(靑天)으로 되는
그런 화엄경을 알 수가 있을까요.

좌절(挫折)로 가는 길은
차라리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검은 그림자처럼 이어지던
슬픈 계절을 극복해 보지 못한
순진한 사람들의 절규여라.

우리들의 모-두는
이 검은 수림(樹林)의 터널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수풀을 헤치고 헤치고 가는 사람.

검은 밤하늘의
빛나는 별빛을 보면서
길을 걷고 걸어가는 나그네
밝아오는 새아침을 기다려야 하느니.

낙엽

하늘을 향해서
바람과 함께
시를 읊었던 나날들.

이제 그 나날들을 거두어
무겁게 떨어지는 낙엽아
대지를 덮는구나.

네 줄기가 그렇게도 추구하던
환상의 그날을 향해
니네들을 노래하였나니.

그러나 이제 따가운 현실 앞에
니네들은 이제 무겁게 떨어져야 하는
아! 무위의 세계를 넓히는가.

나목(裸木)

논두렁에 하얀 눈이 덮이고 미류나무 가지에
속삭이는 찬 바람은 검은 그림자를 손가락질 하네
지난 봄에 그렇게도 활짝핀 진달래 언덕에도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너울너울 춤추던
푸른 아리아의 골짜기에도
찬 바람은 거세게 드시게 스치면서 저-기 너울너울
춤추며 지나가는 검은 죽음의 마녀를 손가락질 하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에베레스트의
산정을 타듯 나목(裸木)들은 내향(内向)으로 꿈뜰거리고
그러나 저-기 먼 지평 너머에서 밀려오는
봉선화의 꽃바람은 검은 처녀(處女)들과 대회전(大會戰)의
북을 치네 아름다운 장미의 검(劍)을 빼들고서
그들의 싸움이 끝장이 날 때까지 자존의 도리(道理)로서
살아 남아야 하느니 차거운 밤하늘에
울음 먹은 달님이여 산천(山川)에 나목(裸木)들의
꿈을 버리지 마오.

6월 1일 밤하늘

내일을 위한 꿈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걸어갈 길, 새로운 앞날인 것을
그래서 나는 꿈이 좋아라.

새로운 아침, 새로운 태양
나는 이제 다시 걸어가는
그 길은 꿈이 만들어 주는 길
약속의 땅인 것을.

멀리 보이는 것은
내일을 있게 하는
새로운 ENERGY
개척의 땅인 것을.

슬픔은 강물이 되어

먹고 사는 일에
미치광이가 되어 나날을 보내는 사이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둘째 형님들이
세상을 뜨고

분홍빛으로 맺어진 친구와 연인들이
하나 둘 떨어져 간 사이
세월은 흘러 흘러
오늘에 이르러

계절이 바뀌고 흐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게 됐다 해서
산과 들로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고 있는 사이에
헐벗고 굶주린 인간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벌판에서 울고 있다.

그래도 어느 집 정원엔
빨간 장미가 피어 있고
시골 동네에 남은 늙은 농부들은
땅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돈 많은 자가 위세를 부리는

그래서 너도나도 돈 벌기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혈안이 되는 사이
인정과 의리는 돈에 눌러
한갓 장식품이 되고 .

나는 지금 어느 지평(地平)에 서 있는가
저-먼 바라지에 흐르는 강물이
아름답고 찬란한 강물인 줄 알았건만
슬픔과 슬픔으로 얼룩진
비에의 강물인 것을
나는 이제사 어렵פות이 알 것 같구나.

어머니

바람과 파도와
멀리 대공(大空)을 향하여
기도하는 바닷소리.

온 공간에
님의 체중이 서럽도록 넘치는
바다 바다의 소리.

태양이 그렇게 가버린 뒤안
바다는 홀로 홀로 울으셨네.

길이여
정이여
관용이여
이 사바세계여.

님의 다음 여정은
어느 보토 부처님이 오니까.

도불(道佛)이 오니까
모성불(母聖佛)이 오니까
해명불(海鳴佛)이 오니까.

구만리 여정(旅程)에

해당화 피고
세존(世尊)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시오니까.

바다 바다
기도하는 바다여
성스럽게 성스럽게
기도하는 바다여.

바람과 비

산들 부는 바람
우연한 바람

세차게 몰아친 바람
계획된 바람과 비

창조와 계획
힘과 노예

우연과 진화
인정과 다정
어느 쪽에 이 몸을 이탁해야 하나?

종점에서

인생의 마무리가 그리도 힘겨워
야반 삼경인데 잠 못 이루네.

세월이 갈수록 욕심도 늘어난다는
욕심이 커질수록 불행이란 여우가 찾아온다는
그런 말들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진한 기대와 희망도 역시 욕심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희망 속에 욕심의 씨앗은 터를 잡겠지요
그러구려 생겨난 복잡한 사연 사연들을
어떻게 우리는 풀어낼 수 있을까요.

피로운 일들은 예언없이 찾아 들고
지체의 숲은 토끼 모양 터를 잡아도
시리도록 안타까운 수많은 사연들은
가슴 속에 낙엽처럼 문히게 되겠지요.

희끗한 노인네가 먼동을 찾아서
눈 덮인 설원을 터벅터벅 넘어갈 때
거기엔 바람도 눈도 짐승도 울지 않을텐가요.

낙엽이 지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물러설 줄을 알아야 한다지만
물러서는 심장에 찾아드는 아픔들을...

낙엽처럼 쉽사리 떨어지게 될까요.

소멸되지 않은 인류사회 미래를 향할까요
소멸하는 생명 저 언덕 너머에
잡을 수도 볼 수 없는 그런 미래를 향할까요.

이제 마지막 종점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런 이정표가 아프리카 남쪽 섬의 희망봉처럼
땀흘려 노저으며 돛을 세워 가야만 하는 건지.

눈오는 날 밤에

떼나비가 쏟아져 날듯
차가운 눈앞이 낙옆같이 날던 밤
누워 있던 이불을 떼다 밀고
무거운 통나무 마루에 나와 앉았었지.

너희들 속에 전개되는 그 흐름 속에
회오리와 진눈개비는
무수한 대나무의 오한을
휘휘 몰아쳐서 휘저으며 지나갔느니.

소나무 껍데기 속 하얀 줄기를 씹어 먹고
쓰디쓴 잔액의 쑥나물을 쌀가루 속에 얼버무려
쓰라린 배를 채우며
그대는 변소간에 숨어들어 눈물을 닦았느니.

낮을 가진 자는 산으로 가고
팽이를 가진 자는 들로 가고
목청 좋은 아가씨는 아저씨를 따라 가고
머리 좋은 자는 황소 팔아 학당엘 갔었으니.

외치는 소리, 외치는 소리, 너희들 외치는 소리는
개혁, 발전, 생산, 도약
우리에게 힘이어, 힘이여 외치는 메아리
내 가슴 속에 맺힌 한은 이제사 끝짓이 날 것인가.

일요일엔 설악산 단풍놀이
텔레비전 프로야구의 뜰뜰이들
너의 막히고 막힌 장벽들은 정말 뚫리였는가
너의 거칠었던 세상은 이제 모두 정말 사라졌는가.

서울의 거리엔 83년의 첫눈이 나리는데
5층 아파트의 창문을 열어젖히는 이 뜨거운 가슴 속에
오한에 사로잡힐 대나무의 귀이치는
차라리 광야의 회오리가 반려자일 수 있으리.

만남

순수하게 만날 사람은 없을까요
홍정의 옷을 훌훌이 벗어버린 채로
우리 서로 텅빈 마음으로
그저 빙긋이 웃으면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어느 날 거침없이 줄 소나기가 퍼부어져서
세찬 물결이 한강에 넘실거릴 때
뱃사공을 삼킬 듯 너울대는 계절이 오거던
너와 나는 다시 만날게 될 수는 없을까요.

너는 뱃사공이 되고
나는 한강다리를 놓고
너는 하천을 관리하고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날.

그런 때에도 우린 텅빈 마음으로
허허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는 없나요
태양은 구름 사이로 영롱하게 반짝이게 되면
아침 이슬을 밟으며 우린 서로 만날 날이 있겠지요.

장엄한 역사의 시작

혼돈과 정체는
그것은 인간역외(人間域外)의 신(神)의 기도
너와 나는 까맣게 잊은 사이
어느 한 장(場)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데도
우리 모두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혼돈과 정체를 소리 높여 부르짖지만
태양은 아침 슬며시 찬란한 햇살을 퍼부어
저녁엔 마음 한구석에 비장한 채
이윽고 새로운 물결과 파도는 일고
새로운 서순(序順)에 동이 튼다
장엄한 역사의 시작은
이리하여 펼쳐지는 것을.

새로운 태동

가을이 깊었는가
질펀이도 푸르렁던
이렇게도 열린 세상에
목청껏 노래하던 계절은 가고,

가을이 영글어서
가지마다 매달린 열매
황혼빛에 젖어 들면
모정에 젖어 고향으로 가는 계절.

엄마의 가을걷이
아빠의 황소울음
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새로운 세상은 태동될거나.

스산한 늦가을에
포스트 모던은 가고
부풀은 땅 잠에 들면
하얀 눈은 나릴테지.

초가집 울타리에
참새들 모여들어
등잔불에 잠 들었던
학동들을 깨우는가.

실다운 태양빛이
대지에 흘러내려
나무뿌리 자라도록
끈질긴 지열모정(地熱母情).

아련히 들려오는
나팔소리 북소리가
사물패에 어우러져
언 가슴을 흔드네.

새롭게 태동되는
열리고 열린 세상
들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봄이 올테지요.

개울물 졸졸 대고
치녀들 빨랫소리
방망이에 힘이 배면
이 언덕 저 언덕이 그린으로 물들겠지.

연거푸 날아오는
아지랭이 증발하면
부푼 대지에 호흡이 돌고
차거운 별 하나 떨어질테지.

무너진 언덕에도
들꽃들은 피어나고
끓었던 쟁기를 땅바닥에 들이 밀면
살갓 닮은 블루라운드.

희멀썩한 글방 총각
조랑조랑 뒤세우고
논두렁을 거닐으는
왕수염 할아버지.

산(山)놀이 산(山)노래도
이제 그만 시들었제
땀 흘려 건강 찾는
농사 짓는 일꾼들아.

지평선(地平線) 저-멀리
신명나는 피리가락
맹꽁이 울어대는
야삼경 밤은 깊다.

새롭게 태동하는
꿈을 잡는 나그네야
이정표(里程表) 따라 따라
어서 어서 가려무나.

아주 먼 미래

사람들은 겸손해서
아-니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한 10년쯤 앞을 내다 보자고
그렇게들 얘기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마음 속의 예리한 꿈과 계산은
이따금씩 수천억만년을 내다 보며
이런 저런 꿈을 꾸워 보지요.

그렇게 먼 미래를 맴돌다가
도끼자루 놓쳐서 발등을 찍히우면
후닥닥 놀라고 놀라워서
현실에 뿌리를 내리자고
목청껏 웨치면서 노래하지요.

윤희라는 무종(無終)의 세월
그 또한 수억천만년을 두고두고 생각하는
미래의 몽상가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일테지요
미래의 꿈이 없는 오늘을 보자구요
그것은 시간이 사라져 버린 모래밭
거칠고 매마른 사막일 뿐.

사막을 넘고 넘어가는

낙타등 바구니에 꿈들은
모래 알 한 알마다에 투명하게 에워싼
시간과 세월의 껍데기를 밟으며 가는
그런 상상력이 원동력일테지요.

앞을 보자구요
무종(無終)의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연과 현실에 안주(安住)하는
오늘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노래를 엮어 내지만
무시(無始)와 무종(無終)의 세월
그것들은 나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하늘을 날으는 꿈꾸는 종달새가 되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의 가능성.

이제 우리는 잠시
역사(歷史)의 그늘에서 쉬어 갑시다
너무도 뜨거웠던 역사의 그늘에서
매화나무 부챗살을 펼쳐 들고서
먼-여정(旅程)을 바라다 보자구요.

달아 밝은 달아

그리운 듯 기다려져
뜰 안을 걷노라니
나무에 가리운 달이
수줍은 듯 떠 있구려.

연분홍 치마폭을
바람결에 날리면서
방문 열고 들어선 누님
버선발을 벗기드시.

달아 밝은 달아
달무리 건너 별들의 세계
한없이 반짝대는 그들의 얘기를
너는야 알고 있겠지.

한여름 밤이 되어
호박꽃 피는 빈터에 나서면
별밤의 얘기들을
속삭여 주세요.

나두야 가려네

숨 헐떡이며
비틀 비틀걸음 치면서
님은 언덕을 넘고 산(山)을 넘고
휘적휘적 자꾸만 멀어져 가네.

밤(夜) 청산 너머에
그래도 달빛 흰히 밝아
님께서 가시는 모습이
길(道)처럼 아른거리네.

님께서 가시고 나면
나두야 가려하네
님 없는 풀밭에 홀로 앉아서
너무도 서러워 눈물이 나네.

가시는 님의 뒷모습
먼지 땀이 뻘 검은 살빛
님이 가시고 나면
나두야 가려하네.

허물어져 버린 마음

천고만난(天苦萬難)의 파도를 타고
아팠던 가슴일랑 이제곰 다두기며
서럽게 서럽도록 살아온 인생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꿈꾸었지.

독거미의 거대한 검은 손이
마귀로 변해 버린 백화점
마구 허물어져 버린 마음
생명은 아비규환(阿鼻叫喚)의 늪으로.

삼계화택(三界火宅)의 현재(顯在)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느니
독한 마음 저-탐진치(貪瞋痴)
끝도 없이 고힘(苦海)로 가는 길목.

웨이저라!
너와 나는 함께 살아야 되는 인연
나의 것을 끝없이 불리어 가면
너의 몫은 한없이 왜소해 짐을...

네 주장만이 진리라는 유아독존
그러나 우리는 진실의 유아독존을
모든 것 비워버린 공(空)의 세계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새벽을 열어야 하느니.

설악산정을 조망(眺望)하며

태고적에

분출하는 용암 지맥(地脈) 따라 흘러서
분화구 용담(龍潭)되어 영기(靈氣)품은 백두봉(白頭峰)
청정 에너지로 승화된 용암 열기
수만년 세월 타고 산맥으로 순화(馴化)되어
가다듬은 힘들은 태백으로 머무는가
태양과 은하 어울어져 짝어낸 시공(時空)
비바람 산하되어 수림으로 자라나네.

태고적 원시의 밀어(密語)

원류되어 흐르고 세월따라 다듬어져
언제쯤 설화(說話)되어 모음(母音)으로 오려나
하늘과 땅 사이
무게로 다가오는 숙연한 마음 되어
설악영봉 조망할제
울울창창 광대무변
유구한 세월 속에 생명으로 오라.

-오늘은 삼풍에서 매몰된 유지환양이 발굴 생환되는 날임-

바람이 부는 날에

끊임없이 불어웨는
바람 바람 바람아
곱게 빗은 머리카락
너를 따라 훑날린다.

더 큰 비바람 광풍처럼 불어
동구머리 느티나무, 개울가 수양버들
비바람에 너울너울 세차게 흔들려도
뿌리깊은 나무라면 쓰러질 순 없을 거야.

땅깊이 묻힌 뿌린들
어느 누가 보았을까요
피땀 흘려 뺏어나린 뿌리 뿌리
숨어서 숨어서 어둠 속에서 숨 쉬네.

꽃은 피고 새가 울면
매화꽃 가지마다 노래 가득히
벼들개지 잎새마다 희망이 가득
산(山) 좋고 바람 좋은 음풍영월(吟風咏月)인데.

거칠고 어두운 땅속을 파고 드는
땀에 뻘 뿌리, 뿌리가 자라네
바람부는 날에, 세차게 부는 날에
흔들려도 흔들려도 생명은 보전(保全)되리.



- 1940년 전남 곡성 출생
- 광주신보 곡성특파원을 맡으면서 글쓰는 작업을 시작
- 1969년 곡성펜클럽 '동악회' 결성 제4대 회장
- 1974년 전남문인협회 가입
- 단편<숙과이모> 장시<새마을 이야기> <88로 가는길>등을 발표
- 현재:곡성군청 운수계장

산불

살기 좋아진 만큼
수목은 우거져
다박솔 밭
오솔길을 메워버리고

시골 젊은 놈들
도시로 빠져나간 만큼
산은 짙어
산나물 캐 곳도 잃어 가는데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리고 금년에도
면서기 여나쁜 명이
천 헥타가 넘는 산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을 끈다

개 짓는 소리가(I)

아들은
신부감 구하러 간다고
추곡 매상한
돈
다 갖고
대처로 나간지
몇 해
소식이 없고

농촌 총각 싫다고
공순이가 된
딸은
공돌이를 주어
제 짝 맞췄다고
혼수감 독촉이
성화 같아

새끼들
느리 보기는
폴세 물꼬 터 분
푼수에

황당그런
빈 집에
누워 있는
늙은 내외 귀에는
개 짖는 소리가
고즈넉만 더 해준다

개 짓는 소리가(Ⅱ)

다
자라면
씨끌도 되고
기둥도 되고
상량목도 되는 소나무는
한 해에
한 매듭만 자라는데

도시를 숲으로 덮어버린
빌딩은
한 해에
한 매듭도 지어지고
두 매듭도 지어지고
마음대로 지어져
정서만
말라붙은 처녀의 젓가슴 같이
삭막하게 만들어

조그만 방죽에
백마리의 개구리가
한꺼번에 알을 실어 나온
올챙이 떼보다

더 많이 우글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도
외롭기는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것 보다
더
외로운데
어디서 미친 개
짖는 소리가 있어
이웃이 있음을
알려 주어
삭막한 가슴을
적셔 준다

개 짖는 소리가(Ⅲ)

꼬끼오
꽤 치는 소리에
아버지는
물꼬도 보러 가시고
남원 소시장에 가려고
돈 보따리 배에다 감고

꼬끼오
꽤 치는 소리에
어머니는
단오 날
춘향이 보러 갈 때
입을
옷
동전에
인두도 시누 몰래 대 봤는데

밀려오는 양풍에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
숨겨진 우리 물처럼
육계에 밀려
장태는 아궁이에 불살라 버리고

분별 없이 키우는
이웃 집 개짖는 소리에
새벽 장 보러 가는 아내
귀 시끄럽고
가슴 시끄럽다

만각

막걸리
대포 한 잔이면
땅을 펴고
산을 베고
하늘을 덮고
살아 왔기에
나이도 잊고
생년월일도 모르고
주민등록 번호도
외우지 않고 살아왔다

나이가
마흔을 넘고
원이 가까워도
예순살이고 일흔살이고 백살이고
이백살이고 오백살이고
오래도록
살 줄만 알았는데

금년에 갓
고등학교에 들어 간

큰 딸 애의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학교에 다
닐까”
날마다 삶을
구름 헤듯 살아가는
내게
믿음이 없다는 말을
아내로부터 전해 듣고

아하
나의 삶의 주소가
여기구나

그래야 피땀

정신이 들어
나이도 헤아려 보고
생년월일도 찾아 보고
주민등록 번호도 외어보는…….

도심의 봄

아스팔트에 묻혀버린 대지는
약동하는 생명의 소리도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내 뿜는
회고 검은 연기는
파란 하늘을 가리는
막이 되어
먼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앗아 가
우리들의 꿈들을 쫓아 버렸습니다
사계절이 있다고 자랑은 하면서도
눈이 와 추우면
옷만 두껍게 입었고
햇볕이 뜨거우면
얇은 옷을 입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봄
오곡을 익혀 이루는
황금의 물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계절을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가는데
아스팔트 틈을 비집고 내 민
잎과리 하나가
봄을 활짝 열어줍니다

가을

남편이 힘차게 모는 경운기 위에
가을을 풍성히 깔고
높이 앉아 있는
먼지투성이의 아낙네 얼굴은
충만한 삶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대문 앞에서 반기는 삼살개의 꼬리에는
수줍은 얼굴을 빨갱게 내민 감이
한 잎의 낙엽을 떨굽니다

수마에 활쥔 상채기를
풍년으로 아무런 농촌 소식 듣고
돌아 온
순돌이와 복순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백일 잔치를 한다고
전 부치고
떡방아 짙고 야단법석들인데
하늘은 떡가루 보다
더 많은 별들로
함박눈 같은 축복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소망

일요일 날 우리들과

가족 동반 등산 가기로

약속을 해 놓은 아빠의

첫 번째 일요일 날 아침 말씀은

“어쩐다지 오늘은 우리 과장 아들의 결혼식이
열 두시에 있는데, 다음 일요일에 가지 응, 다
음 일요일에 가.”

두 번째 일요일 날 아침 말씀은

“미안해서 어찌지. 오늘은 경찰서 계장의 남동
생, 지방신문 주재기자 외사촌 동생 등 다섯군
데나 결혼식이 있는데”

세 번째 일요일 날 아침 말씀은

“일이 자꾸 피어서 어찌지. 오늘은 상급기관
청부아저씨 장모 탈상에 55당 연락소장 처남
결혼식 외에도 네 군데나 가 볼 곳이 있는데.
다음주에 가지, 응. 다음주에. 내 오늘 점심 짜
장면 사 줄께 응”

네 번째 일요일 날 아침 말씀은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가족 동반 등산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피로한데 뭇하러 가냐. 집에
서 공부나 하지. 여보, 내 양복 대려다 냈지.
오늘은 우리 장(長)님 처남 딸 결혼식 외에도

다섯 군데나 된단 말이야. 이거 돈이 너무 들어서 살림 못하겠는데”
하시며 잠바 주머니에서 축조의 봉투 여섯 개를 꺼내 놓으신다
아유 저놈의 봉투
하나에 만원씩만 들었어도
우리 아빠 봉급의 십분의 일은 되겠다
며칠 전 반상회 출장을 다녀오신 아빠는
과소비 추방
허례허식 근절
청첩장 적당히 보내기 운동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방침을 홍보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절대 과소비 하지 말고
허례허식 삼가하며
청첩장 온다고 다 가지지 말도록
아빠 엄마께
말씀드리라 하셨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서도
과소비
허례허식 풍조
청첩장 아무에게나 보내는 풍조가

망국의 풍조라고 떠들고 야단인데
무엇이 우리 아빠의 일요일을 빼앗아 갔나요?
무엇이 우리 아빠의 일요일을 빼앗아 갔나요?
일요일을 돌려 주세요
우리 아빠의
일요일을 돌려 주세요

신호등 밑에서

호젓한 거리의 건널목에
설 때
나는
빨간 신호등을 보고도
도로를 건너고 싶은 충동에
나의 의지가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 충동을 이기려고
이를 양다물기도 하고
하나 둘 셋을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헤아려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벽창호라고
깔깔대고 웃으며
으시댁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파란 신호등을 기다렸다
길을 건너는 마음을 키웁니다

인생

영원에서 왔다가

영원으로 흐르는

하나의 점일 뿐이다.

일요일

때르릉

군청 산림과 직원의 신호로
떨어진
산불방지 비상근무령에
일요일 낚시 계획이 깨어지고

때르릉

군청 건설과 직원의 신호로
떨어진
수해방지 비상근무령에
일요일 가족 동반 강수욕 계획이 깨어지고

때르릉

군청 농산과 직원의 신호로
떨어진
맥파종 면적 증가 지도 지시에
일요일 단풍 구경 계획이 깨어지고

일요일은 없다

일요일은 없다

아니 일요일이 있었던가
영일 없이 쫓기는 사계절에
면직원들의 평요일이 시든다

동구 앞 느티나무는

동구 앞 느티나무는
죽으러 가는 것보다
더 싫은 걸음으로
시집 가면서
뒤돌아 보는
누나의 애뜻한 아쉬운 눈물을
목메게 삼키며 자랐고

군대 가는 아들의
뒷 모습을
눈 시리게 보며
한숨을 쉰다
전사 통지 받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한맺힌 통곡을
하늘로 받으며 자랐고

돈 벌러 대처에 나간
아들 딸들의 소식을
눈 짓물리게 기다렸던 아픔
뒷전에 두고
나간 집구석 같이

황텅그레한 집 마루에 앉아
일 손 없어
목정 밭 될
논 밭 얼굴 시름을
아름으로 안고 자라더니

이제는 마을 어린애들의
소꿉장난 소리에
마디를 키운다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 같이
마누라는 한 사람만
데리고 살아야
사람이 사는 올바른 길이라고
고을이 떠나 가라고
외치고 다니는 소리에
고을 사람들은
그 말을 따랐고
그들도 걸으로는
그런 척 꾸미고 살았더란다

어느 날
그들에게 마누라 외에
숨겨 둔 여자가
하나 또는 둘이
있다는 것이
고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는데
그들은 하나 같이

거짓말이라고 날뛰며
돌아 다녔더란다

어떤 사람이
그들이 숨겨 놓은
여자의 이름을
하나 둘 밝혀 버리자
그들은
고을 사람들에게
나는 숨겨 둔 여자가
하나 밖에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아니 숨겨 둔 여자가
하나 건 둘이 건
더럽기는 마찬가지다
서로 혈뜰고 다니더란다

그들의 하는
꼬락서니를 본
고을 사람들은
돌아서서 말 하길
우리는 뭐 바지 저고린가

비웃으며 킁 킁
웃어 버렸더란다
옛날 옛적에

꿈에도 이런 마음이 일지 않게

방학이 끝 나
마지막
기차에 아들을
태워 보내고 난
어머니 마음에
어데쯤에 있는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나
내 아들이
다치지 않을까
어데쯤에 있는 산에
사태가 나
기차길이 막혀
내 아들이
애 태우고 있지 않을까
어데쯤 가다가
선로가 비틀어져
넘어진 기차가
나뒹굴어
내 아들의 몸뚱아리가
진창에 팽개 쳐
있지 않을까
아들이 탄 역에서부터

서울 가까이까지
좁은 염려스러운 곳을
하나 하나 쪼아 보다가
한강 철교에 이르러
어메
그 많고 긴
다리 가운데
하나를 건너다
그 다리가
끊어져 내려 앉으면 어찌나
가슴 두근거리며
염려 하다
아하
내 아들이 탄 기차는
일본놈이 식민지 때
놓은 다리지 하고
가슴 쓸어 내리는
마음이
꿈에도 일지 않게
우리가 낳고
우리가 자랐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문힐 땅을
일구고 가꾸는데
모두 한마음이 되어
튼튼하게 일궈 나가는 것이...

오동도 소묘

소주병
보물처럼
가슴으로
싸
안고
와

보름날
널 뛰듯
해일 같은
한숨만
토하다

젖은 것
여미고
둥지 찾는
새들.

꿈이

까만
눈동자에 담긴
쪽 빛
하늘을 수놓던
젊은 날의
꿈들이
밤 하늘의
별들처럼
대롱대롱
영글기를

당신

해가
뜨듯
달이
오듯
별이
안기듯
당신

해가
멀듯
달이
멀듯
별이
멀듯
더-
먼
당신

이렇게 삽시다

봄 날

산자락을 돌아갈 때는
씨 뿌려주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름 날

산자락을 돌아갈 때는
무성하게 가꿔주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가을 날

산자락을 돌아갈 때는
풍성하게 익은 오곡을
거두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겨울 날

산자락을 돌아갈 때는
이밥을 짓는 굴뚝의 연기를
감사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내

느-르
가슴에
안고
살면서
산
노루처럼
뛰어
다니다
돌아보면
응달에
숨어
있는
그림자

乙亥頌

별은
밤에만 빛을 내
우리들의 아련한 꿈을
키워 주고

달은
매일 바뀌는 제 모습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주며

해는
매일 뜨면서
우리들에게 불끈
용솟음치는 힘을
안겨 준다.

그러나
별과, 달과, 해는
그들의 찬란함을 가리는
구름과, 천둥과, 태풍의 심술이 있어도

구름과, 천둥과, 태풍을
탓하지 않고
체모습 그대로를
의연히 간직하고 있다가
구름 벗겨지고
천둥 그치고
태풍 가라 앉으면
반가운 얼굴을
우리에게 내민다

우리도 올해는
지난해에 가렸던
우리들의
구름과, 천둥과, 태풍을
탓하기 보다

우리들의 슬기를
한 곳에 모아
불끈 솟아 누리를 비추는
아침 해 같이
우리의 내일을 열자

-乙亥頌 새아침에-



- 아호: 광 암
- 전남 곡성 출생

■ 문단데뷔

- 문예사조 동시 신인상 당선
- 시조문학 시조시 천료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 아동문학회 회원
- 한국자유시인협회 회원
-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 한국아동문학연구소 회원

■ 저서

- 제1시집 <쑥밭에 장미꽃이 피는 날까지>
- 제1시조집 <가을 영가>
- 제1동시집 <오월의 등대>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44-33 17/4

☎ (02) 833-7468

강 물

강물은
낮은 데로 낮은 데로
흘러 흘러만 가면서도
마음은 항상 비단같이 곱다

어찌다가
깊은 곳에 머물어도
답답한 마음 참지 못하고
또다시 흐르면서
바람 불면 하얀 옷음도 드러낸다

흐르다가
가파른 여울이 지면
빠른 물줄기는
숨 가쁜 노랫소리 부르면서도

높은 곳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낮은 길만 가면서도
강물은 즐겁다고 몸을 흔들며 간다.

목련꽃

따사로운
햇살이 봄 뜨락에
머물고 있으면 처마 끝에는
예쁜 함박꽃이 피어나고 있지요

가지 마다
꽃송이만 탐스럽게
뽀얀 색깔 분홍 색깔로
초롱초롱 햇살을 담고 있지요

뜨락 마다
부끄러운 듯 조용하게
목련꽃이 미소를 지으면
나는 어쩐지 파란 치마저고리를
입혀 주고 싶어요.

정 의

어린이는
거룩하게 빛난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이 다음에
위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한다

어린이는
훌륭하신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훗날에 나도 정직한
선생님이 될 것을 꿈꾸어 간다

어린이는
아름답게 꽃을 피운
지도자를 본받아서
나도 이 다음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꿔 간다

어린이는
부끄럼이 없는 정의로운
바른생활 실천하는 모범으로
훗날에 새 나라 새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한다.

비 돌 기

비돌기가
날아든 곳에는
슬픈 이야기가 없고
사랑의 꽃이 피는 평화로운 세계다

비돌기가
날아든 곳에는
다툼 소리 상채기가 없고
행복한 마음 웃음꽃이 피어난다

비돌기가
날아든 곳에는
고운 노랫소리 울려 퍼지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비돌기가
날아가 버린 곳에는
으르렁 소리 무서웁게
마음 가난하고 세상은 어두워진다.

발자국 소리

오늘을 복습하고
내일을 연습하면서
숙제공부 풀고 있는 밤
구두 소리는 똑똑 적막을 깨지요

혼자서 걸을까
둘이서 걷고 있을까
느릿느릿한 발자국소리
담 넘어서 방 안까지 들려 오고

별이 빛나는 밤
졸리는 잠을 쫓으면서
풀어야 하는 숙제 풀지 못 하고
어느덧 새벽이 열려 오면

그렇게 한밤은 가고
참새떼 즐겁다고 짹짹할 때
발자국 소리 묻어 온 신문을 펼치면
기쁜 소식 슬픈 이야기 가득하지요.

뜨거운 정

누구나
그리운 사람이 있어서
보고 픈 친구를 만나면
수많은 이야기꽃 피우지요

어찌다가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서로서로 뜨거운 맘 맞손을 잡고
즐거운 악수를 나누지요

뜨거운 악수는
마음과 마음으로
따뜻한 인사를 나눈 것
헤어지면서도 돌아보는 마음은

웃으며
못 다한 그 이야기를
헤어지기 섭섭해서
다정함을 다짐하고 다짐하지요.

등 대

갈매기도 잠을 자는
고요한 밤에 불을 밝혀 준
등대 지기는
정말 고마운 분이지요

별빛만
반짝이는 밤 바람 불고
파도가 일렁거리면
쓸쓸하고 외로운 파수꾼

물 소리
바람 소리 벗삼으며
반짝이는 등댓불은
샛별과 같은
벚길의 나침반이지요

파도소리
출렁대는 캄캄한 밤에
길을 잃고 해매는
고깃배의 길잡이를 하면서.

소 나무

산에 산에는
이름 모를 크고 작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봄 여름 날
푸르디 푸르른 이파리
어쩐지 가을이 오면 병이 든다

빨갳고 누런색
울긋불긋한 가랑잎은
바람 따라 모두 떨어져도

오로지 소나무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솔잎은 씩씩하게 늙는다.

새 싹

나는 새싹
무궁무궁한 세계 속에
세상에 빛낼 희망을 안고
과란 마음은 푸른 노래 부르면서
약동을 한다

나의 해맑은
미소는 미래의 꽃이요
천진스런 나의 모습은
찬란한 희망과 꿈이
느림하게 자라고 있다

끝 없는 하늘을 날으고
드넓은 대지를 달려갈 포부는
머언 먼 새 세상을
창조할 나는 새싹이다.

일곱 살

나는 일곱 살
처음 보는 친구들을
많이 많이 만나고 있다

예쁜 여자 아이 친구도
똥똥한 남자 친구도
낮설은 또래또래 친구들을

여자 아이는 남자 친구
남자 아이는 여자 친구
둘이 둘이 짝궁이 되어 공부를 한다

짝궁이 없는 또래친구는
예쁜 여자 아이만 바라보면서
외롭다고 투정하며 해찰만 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어린이
수많은 책 헤일 수 없이 많고
보이는 것 모두가 배움터가 되어서

한 발 가면
배움터가 준비하고
두 발 간 지식터가 있고
세 발 가면 별밭이 보이니
무궁무궁한 희망의 길이 펼쳐져 있다

별이 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꿈
첨단과학 컴퓨터를 배우면서
신비로운 우주를 캐 보려고
나는 꿈길을 달려가고 있다.

훗날에도

나에게는
다정한 소꿉친구가 많다
동리에도 학교에도

학교에 가면
가깝고 먼 데 사는 아이들이
넓은 운동장에 시끌벅적하게 어울린다

동리 친구
학교 친구 모두모두는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먼 먼 훗날에도
지금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된다.

즐거운 아침

나는 학교 가는
아침 시간이 즐겁다
또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는 어제보다도
오늘 키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모두모두는
즐거운 모습에
씩씩하고 튼튼한 몸
학교 가는 길에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뛰어가면
땀은 솟아나고 빨간 얼굴은 아름답다

운동장에
들어서면 서로 반갑다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불러대면
귀는 시끌어도 명랑한 얼굴로
활짝 웃는 기쁨을 나눈다

이렇게 하루는
시작되고 학과 시간이 되면
조용한 분위기에 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열심히 듣고 배운다.

홀쭉이 똥똥이

나는 학교에 가면
너무 똥똥한 친구도 있고요
아주 홀쭉이 친구도 많아요

키가 큰 아이도
키가 너무나 작은 친구 모두는
건강하고 명랑한 모습이지만

똑같은 낮과 밤
다 같이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어쩐지 크고 작은 층층이 있지요

비슷한 나이 또래또래가
다 같은 가정 생활 학교 생활인데
너무나 가냘프고 비대하니 이상도 해요.

봄은 즐거워

개나리꽃 피어나서
기쁜 듯이 안녕안녕하면은
진달래꽃 달려와서
우리는 언제나 다정한 친구
봄날이면 우리 함께 웃지요

논둑길 밭둑 길썬에는
활짝 핀 할미꽃이 웃어대며 하는 말이
나도 전에는 너희처럼 예뻐는데
하면서도 서러운 듯 말을 잊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지요

이렇듯 봄은 즐거워서
나무마다 풀잎마다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따뜻한 봄길을 따라오며
꽃송이는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지요.

시 계

똑똑

초침소리를 들으면
큰 나무는 생명을 옥 죄고
꿈나무는 키가 조금씩 크다

똑똑

초침소리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중점도 없이
그냥 부지런하기만 하다

똑똑

초침소리는 생명이 노래다
한 치도 어김없이
모든 이에게 길잡이를 하고 있다

똑똑

초침소리는 새벽을 열고
무수한 하루 해를 단으며
쉽 없이 돌고 또 돈다.

심술쟁이

나는 지금
눈부시게 피어나려는 꽃봉오리
이왕이면 아름답고 곱게
피려고 연습을 하고 있다

아지랑이
아롱아롱 서려 나는 봄 트랙
산과 들을 나의 꽃으로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하고 싶다

내가 예쁘게 보이면
어여쁜 나비는 나를 찾아오고
벌도 뒤질세라 나를 찾아서
아주 예쁘다고 칭찬을 하며
오래오래 친구가 되어 준다

나에게는 이렇게 예쁘고
날씬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바람은 시샘을 하는지
괜히 심술만 부려대는
바람둥이가 되어 나를 슬프게만 한다.

태 양

해님은 너무나 고마운 빛
소중한 불꽃이 피어나 듯
조용히 아침을 열고 오면
세상 눈은 하나 둘씩 반짝인다

아름다운 빛이요
은혜로운 빛이기에
자라나는 나의 마음은
밝은 해님처럼 빛을 내고 싶다

빛이 없는 곳에는
꽃생명들 활동이 정지되고
깜깜한 암흑세계는
나와 같은 어린이 더욱 불쌍하다

은 세상 어린이들아
푸른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소중한 빛 고루 받아
쭈욱 쭈욱 자라서
나와 함께 꽃피워 간다.

친 구

다정한

친구는 항상 잊지를 못한다
허물없이 깔깔대고
뒹굴면서 함께 놀았던 철부지 친구

어느 날

철 없는 친구는 소식도 주지 않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 버리면
어쩐지 내 마음은 오래오래 슬퍼서

보고픈

마음 하나 편지를 써 봐도
보내 줄 길이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었지만

떠나가 버린

친구 마음도 내 마음 같을는지
그리워도 찾을 길 없고
언제라도 다시 만나면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려나.

추억

나 어릴 때 살던 집
뒤뜰에는 대나무밭 푸르고
한낮에도 살랭이는
닭을 쫓는 산촌 마을
그래도 법새와 참새들의 낙원이었다

울타리엔
가죽나무 높이 솟아 있고
뽕나무 가지 চে멧대로 뺏어서
참새는 술래잡기를 하고
아침까지는 반가운 인사를 했다

울 안에는 꿀돼지
배고프다 꿀꿀 대고
해님 눈부신 여름날이면
뒷동산 삐죽새 삐죽삐죽 울어대는
내가 살았던 초가 마을은 추억이다.

셋 별

저녁별

하나 둘씩 반짝반짝이면
조각달은 벌써 사라지고
깜깜한 밤은 그냥 깊어만 가지요

고요한

하늘에 별 세상을 이루면
나도 별이 되어
희망찬 내일을 빛내려고
꿈나라로 문혀 가면서

깊은 밤

나는 온 누리를 내려보다가
총명한 큰 셋별이 되어
새벽 여는 몸짓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 화

목화꽃이 사라져 간
동구 뺨 텃밭에는
하얀 비닐론이 차일을 치고
희디 흰 목화 꽃밭을 이루고 있다

목화는 전설이 되어 가고
나와 같은 어린이들 마음과 눈에는
햄버거 피자떡에 입맛을 잃고
목마르면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있다

무명옷 사라지고
나의 차림새는 너무도 화려하지만
탐스럽게 피어나는 목화를 잊어가면서
나는 지금도 백의 민족 노래만 부르고 있다.

아침 이슬

해가 지고
깜깜한 밤에
누가누가 울었나 봐요
아침 풀잎새는 방울방울 이슬이 맺히고
굴을까 깨어질까 걱정이 되네요

어젯밤 별님들은
반짝반짝 빛났는데
새벽 달님 누엿누엿 기울고
영롱한 이슬 방울은 구슬 같아서
두손 모아 주어 볼까 꺾어 볼까 하지만

아마도
나와 같이 작은 별이
어두운 밤 무서워서 울고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차마 거두지 못하고
해님이 부끄러워서 숨었나 봐요.

꽃 나라

새파란 하늘에는
흰구름이 몽게몽게 떠가고
땅에는 푸른 싹이
파릇파릇 떡잎을 드러내면

새들도 즐거워서
떼를 지어 높이높이 날으면
봄꽃들은 울긋불긋
꽃 나라를 만들지요

해님도 기쁜 듯이
따사로운 빛 포근하게
길게길게 비취 주면서
튼튼한 몸이 되라고 웃고 있지요.

여덟 살

여덟 살 어린이는
낮익은 친구가 되어
사이좋은 짝궁이 되지요

이제는 조금 언니되었다고
철들고 으쓱한 모습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르지요

누가누가 제일 먼저
학교에 오는가 내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키워 가지요

예쁜 얼굴 붉히면서
새 옷 입고 자랑도 하는
명랑한 학교 생활 여덟 살은 즐겁지요.

쪽 배

낮에 낮에
나온 하얀 반달은
어쩐지 보일 듯 말 듯 하다가도

깜깜한 밤
푸른 호수에는
하얀 쪽배가 선명하게 보이지요

하얀 쪽배는
해님을 따라가는지
일찍 일찍 서쪽 나라에 사라지고

해 가고 달도 진 밤
별빛만 반짝이면
고요한 밤은 깊어만 가지요.

피아노

나는 피아노의
고운 소리를 들으면
나의 마음은 즐거웁고
아름다워 진다

슬프고
감미로운 반주 따라
어린 내 마음은 포근해지고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

고운 손
움직임을 따라서
높고 낮은 고운 노랫소리는
신비롭고 황홀도 하다

베토벤
월광곡은 아니어도
어린 마음은 즐거웁고
별세상에 잠든 기분이 든다.

장 독 대

우리 집
장독대에는
맛과 정성이 듬뿍 담긴
까아만 향아리가
층층으로 줄 서 있어요

짠 냄새
매운 냄새를
대물림으로 풍기면서
맑게 개인날엔 큰 입을 열고
햇빛을 가득히 담고 있지요

간장독
고추장독이 올망졸망해도
항상 배고픔을 모른 듯
배불때기 되어
구수한 입맛을 돌귀 주고 있지요.

삼 살 이

나는 가만가만히 걸어 봐도
우리 집 작은 삼살이는
영락없이 나를 알아보고
짓어 땀을 잇고 순한 양이 된다

밖에서 내가 돌아오며는
그렇게도 반가운지
꼬리를 어지럽게 흔들어대고
귀여운 몸짓을 하는 삼살이가

이웃집 친구 성희가
문 앞에만 와도 요란스럽게
짓어대는 삼살이
말은 못 하여도 귀가 밝고
영리한 재치에는 나도 따를 수가 없다.

풍 경

푸른 동산에
토끼가 뛰어놀고
꽃사슴이 한가로이 노는 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지요

이름 모를 쪼그만 풀포기도
의젓한 꽃대를 세우고
예쁜 꽃들을 피워내는
자연은 너무너무 고맙지요

자라나는 어린이여
우리 함께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면 날으는 작은 새도
짹과 함께 노래를 하고
기는 벌레도 즐거워 하지요.

희 망

나의 푸른
마음은 파도를 치고
끝 없는 지평선 바라보면서
지상 낙원을 가꾸고 싶은 파도 마음

나의 푸른
마음은 희망과 꿈
검푸른 수평선 바라보면서
튼튼한 수궁을 세워 보고 싶은 마음

나의 푸른
마음은 활화산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나라 가는 꿈을 꾸고 있다.

고향

나 어릴 때 정든 고향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바위 많고 물도 많은 광암리
그래도 따뜻한 해님 오고
밝은 달님이 찾아왔어요

앞산엔 부엉새 울어대고
뒷동산엔 소쩍새가 우는
산 많고 골짜기도 많은
나의 고향은 광암리
아주 고요했습니다

동구 밖에는 강물 맑게 흐르고
여름날에는 떡감고 놀던 곳
겨울이 오면 하얀 눈 세상에
고드름만 주렁주렁했으니
내 고향 광암리는 아름다웠어요.

구름

나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으면
마음은 구름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요

나는
파란 하늘에
양 떼 구름 느릿느릿 걸어가면
마음은 뛰어올라 목동이 되고 싶어요

나는
파란 하늘에
먹구름이 야트막하게 덮여오면
어쩐지 슬픈 마음에 답답도 해요.

청 포 도

햇볕 쨍쨍한
여름날 넝쿨들이 어울어지고
푸른 잎 무성하게 드리운
칠월 달 포도밭에는

탐스러운
청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리어
우리는 항상 파란 맘이라고
싱싱하게 속삭이고 있으면

나와 같이
파란 친구들이 찾아와서
참으로 귀엽고 아름답다며
우리 형제를 따로따로 떼어
입맞춤을 하지요.

소곤소곤

하늘에는
별님들이 소곤소곤
땅에는 꽃송이가 소곤소곤
새별들도 비밀이 있고
꽃송이도 비밀이 있나 봐요

어린이는
소꿉장난하면서도 소곤소곤
짜궁도 귀에 대고 소곤소곤
즐거운 학과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도 비밀이 있나 봐요

아침 참새도 소곤소곤
하다가 곡식밭에 날아들고
발갣줄 제비떼도 소곤소곤하면
파란 하늘은 바다와 같고
어린이 비밀은 모두 파란 꿈이지요.

4월은

사월의 봄날은
그림같이 아름다워요
샛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고
노랑색 병아리는 삐악삐악하고요

사월의 봄날은
어린 나의 마음 같아요
진달래 꽃은 산을 물들이고
산제비는 기쁜 듯이 날아들고요

사월의 봄날은
예쁜 소녀의 마음 같아요
탐스런 목련꽃은 조금 붉고 하얗게
양지뜰에 다소곳이 웃고 있지요.

호숫가에서

나는
빛부신 여름날
호숫가를 산책하면
마음은 잔잔한 호수가 되어
새파란 생각만 피어난다

나는
그늘을 얻어 쉴 때
뼈꼭새가 울어 주면
마음은 평화롭고
어느덧 파란 호수가 된다

땀을 식히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호수를 내려다보면
새파란 빛들이 나의 마음 같다.

백 로

질 푸른
소나무 밑에는
언제나 탐스러운 하얀 꽃이
피어난 듯하고

검푸른
호수에도 언제나
새하얀 꽃송이가
둥둥 피어 흐르고 있다

예쁘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백로새는
날개짓 퍼덕이고 있다.

고 양 이

느릿느릿
걷다가 나는 듯이
돌담벽을 건너뛰다
작은 몸뚱이가 날쌔고 야무진 고양이

입은 작아도
기인 수염은
맹수의 왕자 같고
빛을 발한 눈에는 광채가 난다

가벼운 몸짓은
게으른 듯 낮잠만 자다가
날카로운 발톱은
귀를 낚고 있었다.

까치 집

높다른 미루나무 위에는
궁상스런 까치 집 하나
그래도 이십오 층
아파트라고 자랑을 한다

하늘 집에서
다정한 까치 한 쌍은
세상을 굽어 보며 도란도란
참으로 세상은 아름답구나 한다

해님은 까치 친구인 양
새벽같이 찾아와서
어젯밤 잘 잤느냐며
따뜻하게 속삭이며 인사를 한다

저녁에는
큰 언니와 같은 둥근 달님이
살짝 찾아와서 잘자거라하며
내일 또 오마 안녕안녕 하고 간다.

팽 이

개구쟁이 어린이는
내 아픔을 몰라주고
오로지 때리는 맛에
취해 있으니 기가 막혀 죽겠다

내 몸은 너무 아파서
나는 취한 채도 해보지만
힘대로 휘두르는 채찍에
어린이 모두는 기분좋아 미소만 지으니

나는 철없는 어린이만 바라봐도
기쁜듯이 돌아라돌아라 하다가
어린이는 제 거워서 지치고
그 속에 나는 그냥 누워 버리지만

부질없는 어린이는
때리는 맛이 즐거워서
무작정 채찍질만 휘두르니
그래도 나는 참으면서 돌고만 있다.

새 세상

오솔길
황톳재도 넓어지고
미끈한 아스팔트길에는
걸음걸음마다 발길은 가벼웁고

덜커덩
덜커덩 자갈길은 볼 수 없으니
개나리 붓집 지갯집도 사라지고
농부들 주름살도 쪼끔씩 펴지고 있고

논두렁
밭두렁 굽이를 돌아서
등짐지고 쉬어가던 농로길에
낫설은 자동차가 한가로이 멈춰 있고.

산골마을

산골짜 작은 마을에도
키가 큰 장다리꽃은 피어나고
보라색 감자꽃도 피었다
밤에는 부엉새가 울어주고

고요한 산골 마을에는
맑디맑은 푸른강이 흐르고
산자락 굽이굽이 골짜기에는
빨간 가재들이 한가롭게 놀고

새벽찬 쑥국새가 아침을 열면
논밭에는 한사람 두사람씩
땀 흘리며 정성으로 가꾸는
농촌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 비

나비야 나비야
너희는 짝궁도 없이
누가누가 반겨주나 기웃기웃하면서
그냥 이 꽃 저 꽃을 모두 사랑하는구나

날개가 고운
나비는 정말 예쁘지요
나풀나풀 가볍게 날아서
꽃 머리에 살짝히 앉는 그 모습

꽃밭에 날아든
흰나비 노랑나비는
별광대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른 채
꽃과 함께 소곤소곤 하고 있어요

빨간꽃 노랑꽃에
호랑나비도 날아들고
꽃에 취한 나비들은
떠날 줄 모른 채 사랑하고 있어요.

옛 주소

사립문 앞에는
실개울물 맑게 흐르고
작은 논뼤미가 층층인
옛 고향 광암리를 건노라니
내 마음은 봄을 맞은듯 기뻐다

어릴 때 함께 놀던
그때 그 친구들 어데서 살고 있는지
나처럼 모두 고향을 떠났으니
서러운 봄날 보리피리 함께 불렀건만
얼굴 마져 아른아른한다

적막한 산골에도
닭울음 소리는 새벽을 열고
순박하게 논밭갈아서 씨뿌리며
평화롭게 품앗이로 살아온
고향이름은 광암리
옛 주소를 찾아왔다.

선 생 님

선생님의
눈에는 나의 마음과
얼굴이 들어 있고
나의 눈에는
선생님의 입과 눈이 들어있다

선생님은
나의 얼굴을 읽으면서
내가 장난치는지
열심히 공부하는가를
한눈으로 가르치고 다스린다

선생님은
한눈으로 나의 마음을 안다
기분이 좋고 나쁜지
피병을 부리는지 건강한지를
항상 보살펴주시고 가르친다.

편 지

나와 같은 어린이는
편지 쓰기를 구차해하는지
즐거웁고 반가운 편지가 없다
가깝고 머언 친구에게도
전화기에 묻고 대답을 한지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편지글을 써보자
정성들여 주고받는 마음 하나
사랑스럽고 정이 담긴
편지를 주고 받아 보자

오늘도 우체부는 오고
누구에게 편지가 왔는지
궁금도 하여 지금부터
나는 푸른마음 하얀마음을
하얀 봉투에 담아보기로 마음 먹었다.

꿈은 멀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만큼 걷고 있을까
길고 먼 꿈을 꾸면서
아름답게 설레이고 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저 해님 하나로 온 누리가
밝아지고 어두워짐을 보면서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걷고 있다

나는
오로지 갈고 닦는 어린이
신비함을 나 스스로 물으면서
꿈은 크고 희망은 양양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다.

샘터

나날이 멀어져 간
옛 시골 동리에는 샘터가 있고
까야만 물동이를 이고 온 언니들이
수줍은 얼굴로 고운 이야기 꽃을 피웠지요

동백기름 고운머리 적시고
무명옷 배적삼을 적시면서도
꿈 많은 언니들이 나물을 씻으면
낮에는 해님 밤에는 달님이 반겼어요

지금은 편리한 수도물이 유행하여
예전에 물동이를 이고 온
예쁜 언니들 다 에데가고
맑은 샘터엔 그 누가 이야기꽃 피우는지
지금도 해님 달님만 오고 간데요.

바 다

바다는

춤을 너무너무 잘 춰요
때로는 난폭하게 포효하면서
아득한 수평선은 가물가물 하지요

바다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날마다 맛있는 고기를 키워주면서
어린 나의 몸 튼튼하라고 하지요

바다는

힘이 너무너무 세요
우리 학교보다 더 크고 높은
큰 배를 가볍게 띄워가지요

바다는

너무너무 착해요
깨끗한 강 더러운 강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모두 품에 안지요.

나 무

나무는

항상 졸고만 있지요
낮에 보아도 밤에 보아도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키가 꼬끔은 커 보여요

나무는

항상 하늘만 보고 있어요
밝은 낮에도 어두운 밤에도
그러나 아침에 깨어나 보면
이슬을 조금은 머금었어요

나무는

항상 울지를 앓아요
비가 쏟아지고 눈이 내리어도
그러나 아침에 바라보면
나뭇가지 조금은 반기는 듯 흔들지요

나무는

항상 웃지를 앓아요
해님이 반겨주고 달님이 반겨도
그러나 아침을 열어보면
푸르고 씩씩한 모습 늙름하지요.

거울

거울 속에는
나와 똑 같은 내가 들어있다
웃으면 웃는데로
찡그리면 찡그린데로
어찌면 그렇게도 똑같은지

눈 코 입 얼굴
머리카락도 다른 점 하나 없이
내가 움직이면 움직인 데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흉내를 내고 있다

거울은 요술쟁이
얇은 유리 속에
이렇게 큰 나의 몸을 안고
나와 나는 멋을 내며
추한 점은 털고 닦아 내면서
옷단추도 만져보고 있다.

눈 세상

눈송이 펄펄 내리는
고요한 겨울밤에
나는 하얀 꿈을 꾸고 있었다

잠을 깨어난 겨울 아침
나는 정말로 눈이 부신
하얀 눈세상을 보았다

소리없이 살짝 내린 눈은
뜨락에도 나뭇가지에도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다

눈이 덮힌 아침
학교길에는 나보다도 더 부지런한
명명이 발자국을 보았다.

재 룡

한창 재롱떠는
아기 어린이를
사랑스럽고 귀여운 마음으로
눈싸움 하면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사리 꼬막손은
잼잼을 하다가
무엇이나 붙잡으면 입으로 가져가고
천진스런 까만 눈은 총명했다

파란 꿈 가득하게
티 없이 웃을 때마다
예쁜 하얀이가 우아래 두 개씩
젓먹이 나이를 말해주고 있다.

사 공

자라나는 새싹은
어른이 되어 바다로 간다
꽃향기 풍기는 바다
풀향기 물씬한 바다로

아름답고 화려한 곳
외롭고 쓸쓸한 곳에
어린이는 떴지어 가다가
어느날 혼자 새가 된다

높은산에 날아들고
수풀속에 날아들다가
추락하고 침몰하면서도
사공이 되고 위인이 된다.

불

나와 같이
철부지 어린이들은
불조심하라는 주의를 자주 듣지요

불은 편리하고
아름다워도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서나 학교에서 귀에 익히지요

그 옛날 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궁금하기만 해요

쫄그만한 불씨하나
발견하여 자라나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분은 아주 훌륭하고
고마운 분이지요.

詩 三 人 選 集

1996년 10월 1일 인쇄

1996년 10월 9일 발행

발행처 : 곡 성 문 화 원

인쇄처 : 청 진 문 화 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0-1

☎ (062) 223-4346

이 冊은 地方費 支援으로 發刊 되었음.

